

고구려연구재단 시민강좌

중국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바로 알기

일시 : 2004년 7월 21일(수) ~ 23일(금)

2004년 7월 28일(수) ~ 30일(금)

시간 : 오후 3:00 ~ 5:00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

주최 : 재단법인 고구려연구재단

인 사 말

2004년 3월 1일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사의 기본 체계를 정립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모색하여, 이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민족사로서 고구려사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하는 시민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위원들과 함께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니다.

‘중국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강좌를 통해 중국측의 역사 왜곡이 결코 단순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며 그 해결도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본 시민 강좌를 위해 노력한 연구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4년 7월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김 정 배

차 례

중국의 역사 인식과 동북공정

07

- 보충자료 :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 -

- 강사 : 윤휘탁 박사(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일시 : 7월 21일, 28일

고구려사의 전개과정

41

- 강사 : 김현숙 박사(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일시 : 7월 22일, 29일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과 벽화의 세계

51

- 강사 : 김일권 박사(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일시 : 7월 23일, 30일

중국의 역사인식과 동북공정

강사 : 윤희탁 박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I.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상황
 - 1. 거시적 상황
 - 2. 동북 지역의 상황
- II. 현대 중국의 역사 인식
 - 1. 애국주의 역사관
 - 2.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 多民族國家論)
- III. 동북공정의 추진계기와 의도
 - 1. 추진의 직접적 계기
 - 2. 추진 의도
- IV.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
 - 1. 1차 사업 기간
 - 2. 기초 연구
- V. 동북공정의 논리
 - 1. 고구려·발해사 '연구자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
 - 2.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 3. 중국의 발해사 인식
- VI. 중국의 역사인식과 동북공정의 상관성

I.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상황

1. 거시적 상황

-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회의감 확산 → 사회적 이완현상
- 잘사는 동남연해지역과 못사는 내륙지역의 빈부격차 심화 → 위화감
- 내륙지역 거주 소수민족의 소외감 확산 → 분리독립운동 표출(신강 위구르족, 서장자치구 티베트족)

2. 동북 지역의 상황

- 대량의 북한인이 중국동북으로 탈북, 은거
- 수많은 중국동포가 남한에 불법체류 → ‘한국인화’
- 이들이 재외동포특별법 제정을 통한 차별철폐요구, 국적회복운동 전개
- 많은 한국인이 만주를 ‘한국 땅’이라고 선전
 -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와 정체성확립의 필요성 인식
 -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강화할 필요성 인식
 - 중국의 역사인식에 반영됨

II. 현대 중국의 역사 인식

1. 애국주의 역사관

- 침략(수탈) ↔ 저항, 매국 ↔ 애국의 이분법적 역사관 → 애국의 당위성 고취
- 애국주의 교육의 강화 → 국가에 대한 충성심 유도

- 집체주의(集體主義)의 강조 → 사회·소속기관·공산당·중화민족·조국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함을 역설
- 소수민족의 특수성, 개성자유의 강조 → ‘민족·국가의 분열’로 인식하게 함
- 이분법적 역사관 사이의 회색지대(灰色地帶)는 존재 곤란 → 조국과 중화민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

2.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 多民族國家論)

- 화이관(華夷觀)의 형성 : 중원왕조는 정통, 화하족(華夏族)은 문명, 사이(四夷)는 야만
- 화하족(漢族)과 사이는 중국(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 중국(중원)은 수 차례 분열(삼국, 위·진·남북조, 5대 10국 등)
- 화이관의 약화, 대일통(大一統)의 전통으로 통일적 왕조(진, 한, 수, 당, 송, 원, 명, 청 등) 및 ‘중화민족’의 형성
- 원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초석 마련, 淸은 그것의 완성
 - “중국은 한족과 다수의 이민족이 생존 경쟁하면서 분열되기도 했지만 대일통의 오랜 전통에 의해 궁극적으로 통일적인 국가를 형성해왔다.”
 -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서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민족은 모두 중국(중화)민족이며, 그들의 역사적 활동내용은 모두 중국역사의 범주에 속함”
 - 고구려·발해사는 중국사에 속하고, 고구려·발해 민족도 중국민족이 됨

Ⅲ. 동북공정의 추진계기와 의도

1. 추진의 직접적 계기

- 대량의 북한 탈북자 현상 → 만주의 ‘한민족 근거지화’ 방지
- 향후 한반도의 통일정세가 중국 동북사회에 미칠 영향 우려

- 중국 내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대비

2. 추진 의도

-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만주)의 역사적 상관성 부정 : 한반도에서의 “실지수복론(失地收復論)”, “만주상고사(滿洲上古史)=한국사”론 차단하기 위한 논리개발 및 논리근거 확보
 - 고구려사, 발해사는 중국사이다.
 - 조선족의 모체는 중국민족이고 일부가 한반도에서 유입되어 융합되었다고 하여 조선족의 중국국민 정체성을 확립
- 향후 불거질지 모르는 한중간의 영토분쟁(특히 간도문제)에 대비
 - 고구려 지역은 서한 한사군의 관할 구역, 원래부터 중국 땅
 - “만주=한국 땅” 논리를 부정
- 향후 한반도 통일에 따른 정세변화에 대비 →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지역이 한사군의 관할구역이었던 점을 내세워 연고권을 주장,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세력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 포석을 마련
-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편승한 북한 망명자 및 난민의 중국으로의 탈출 및 이들의 ‘국제 난민화’ 방지 → 탈북자에 대한 강경조치, 중국당국에 체포된 사람은 북송시킴
- 조선족의 이탈 내지 분리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 → 조선족의 모체는 중국민족이라는 점 강조, 역사교육 강화
- 몽골이 원사(元史)를, 베트남이 진한대 백월(百越), 남월사(南越史)를, 위구르족이 서역사(西域史)를, 티베트가 토번사(吐蕃史)를, 한국이 고구려 발해사를 제각각 자국사로 인식하는 것을 용인할 경우 중국역사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방지
-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중국역사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역사였음을 대내외에 과시, 중국의 자존과 중화주의 역사관을 확고히 하여 주변국가의 소수민족에 대한 영향력을 궁극적으로 차단
-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있음

IV.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

1. 1차 사업 기간 : 2002~2006년(5년간)

1. 기초 연구 : 기획연구(공개)
2. 응용 연구 : 한반도 형세변화 예측 및 조선족 동태 문제 연구(사안이 민감, 비공개)
3. 번역 : 남북한의 상고사 및 한·중 관계사 연구물 번역
4. 자료집 발간 : 동북변강역사당안회편(東北邊疆歷史檔案滙編) - 동북 3성별 작업진행

2. 기초 연구

1. 1차 과제(2002년) : 27과제

- 호태왕비(好太王碑), 발해국사, 기자조선, 발해사론, 중·한 성씨 족원(中·韓 姓氏 族源), 고구려사, 동북 민족구역 설치, 한·중 국경 논쟁 문제, 삼국사기 역주, 장백산지구 역사 문화 귀속문제, 동북지구의 국제 이민문제, 발해 이민 귀속, 한반도의 고구려 유적조사, 동북古민족 발전사
- 흑룡강 통사, 20세기 중국 동북 변강문화, 중국 동북정권의 변경통치, 역대 동북변경 통치, 청대 변경 도시, 동북 한족 인구사, 중국 역대 치변(治邊) 사상, 청대 봉금(封禁) 및 개간, 동북변강 다민족의 교류와 융합, 만주국 시기 동북변강 충돌과 국경 교섭
-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러시아 극동지구 중국인, 러시아 동북 이민과 개간

2. 2차 과제(2003년) : 15과제

- 고구려 민족과 국가의 변천, 청말 조선족 이민과 간도문제, 한반도 민족 국가

의 기원과 발전, 말갈 발해와 동북아 각족의 관계사, 명대 조선 이민, 고구려
족원과 강역, 발해유적지 조사, 연변지구 국제혼인 문제, 명대 동북 강역, 동북
변강 사회안정

- 중·러 동북 변계(邊界)문제, 변강의 담론, 러시아의 아·태정책 방향과 중·러
협작

3. 3차 과제(2004년) : 15과제

- 중국 국가 강역 이론 문제, 고대중국의 주변 제족국(諸族國)에 대한 관념, 변
속(藩屬)·속국(屬國)·조공(朝貢)제도, 동북변강역사의 형성과 변천, 동북변강
의 영토·계무(界務)·조약 문제, 역대 동북이민과 이민정책, 명·청 시기 동북
족군(族群) 의식과 변강사회
- 고조선 역사·족원(族源)·문화, 고구려 족원과 유민의 거취, 고구려 귀속문제,
발해 족원과 유민의 거취, 발해의 귀속문제, 한반도 고문명(古文明)의 기원, 한
반도의 국·족(國·族)
- 중국과 러시아의 만주 민족정책 비교

V. 동북공정의 논리

1. 고구려·발해사 ‘연구 자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

- 중국 : 고구려·발해연구는 ‘중조우의(中朝友誼)’ 원칙에 위배되면 곤란, 침체
 - 북한 : ‘독립적인 주체사관’ 수립하에 ‘고구려학 열기’가 고조
 - 남한 : 1970년대부터 북한의 연구열기가 전파, 고구려연구 고조
- 남북한에서 민족의식 고취 - “실지수복론(失地收復論)”, “국사중심론(國史中心
論)”, “혈통론(血統論)”
- 중국에서도 대응차원에서 고구려·발해 연구 시작

→ 남북한의 고구려·발해연구는 식민시기 일본 동양학자의 “인종론(人種論)”, “만
선사관(滿鮮史觀)”의 계승이자 재판

2.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 1950-60년대 : 고구려사=한국사로 분류, 중국의 세계사 역사교과서, 저명한 중
국 역사학자의 저서들도 이 견해를 수용
 - 1970-1980년대 전반: 고구려사는 중국사(평양천도 이전)인 동시에 한국사(평양
천도 이후)
 - 1980년대 중반 이후: 고구려사=중국사
 - 고구려 정권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다.
 - 고구려 민족의 족원(族源) : 예맥(濊貊), 부여(夫餘), 고이(高夷), 상인(商人),
염제설(炎帝說) 등
 - 고구려 민족은 예맥, 한족, 선비, 숙신의 융합민족, 한민족과 무관
 - 논리 근거
 - 고구려는 중국 중원왕조와 신속(臣屬) 관계를 유지했다.
 - 고구려는 서한(西漢)의 관할하에 있었고 한사군 영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
 - 고구려 유민(70만) 가운데 일부(10만)가 신라에 융합, 대다수는 중국 중원의
한족·말갈족 등에게 흡수 → 한반도 왕조(특히 고려)와 무관
- 당의 고구려 정벌은 ‘침략’이 아니라 ‘중국 국내의 통일전쟁’이다.

3. 중국의 발해사 인식

- 발해국은 당조(唐朝)에 예속된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 발해국의 건국자 대조영은 속말말갈족 출신이다.
- 발해민족 : 속말말갈을 주체로 읍루, 부여, 옥저, 예맥, 일부 고구려
- 유민 등이 융합된 민족으로, 한반도 민족과 무관하다.
- 논리 근거
 - 발해 = 한국사 논리근거 : ㉠ “진국본고려(振國本高麗)”, ㉡ “신라인이 발해

- 를 北國으로 불렀다”, ㉔ 대무예가 일본국에 보낸 글 가운데 “복고려지구거(復高麗之舊居)”라는 기사, ㉕ “발해말갈대조영자, 본고려별종야(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기사, ㉖ “발해, 본호말갈, 고려지별종야. 기국토물산여고려동(渤海, 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 其國土物產與高麗同)”에 일일이 비판
- 발해=중국사 논리근거 : ㉑ 구당서의 “발해말갈대조영자, 본고려별종야(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㉒ 신당서의 “발해, 본속말갈부고려자, 성대씨(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㉓ 책부원귀의 “봉말갈대조영위발해군왕(封靺鞨大祚榮爲渤海郡王)”(권964, 봉책2)

VI. 중국의 역사인식과 동북공정의 상관성

- 중국의 보편 역사 인식 - 독립 변수
- 동북공정 논리(滿洲觀) - 종속 변수
- 전자가 후자의 성격을 규정, 후자는 전자의 논리를 강화시켜줌
- 양자는 상호 작용, 불가분의 관계
- 애국주의 역사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 국민·영토통합에 목표
- 사회주의 체제 회의감 확산, 일부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
 - 체제 안정 혹은 국가적 통합의 필요성 증대
 - ‘애국’과 ‘단결’, ‘통일’의 강조
 - 동북공정 논리는 체제논리나 국가주의 틀에서 벗어나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음

<보충 자료>

현대 중국의 변강 · 민족인식과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

윤휘탁 박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I. 서론
- II. 현대 중국의 ‘변강(邊疆)’관과 관심 지역
 - 1. 변강의 정의
 - 2. 주목받고 있는 변강
- III.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내용과 추진 실태
 - 1.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 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과 추진 목적
- IV. “동북공정”에서 드러난 ‘만주관’
- V. 결론

I. 서론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이 만주에 산재한 고구려 성곽 유적지를 답사하려다,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금지’라는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당지에서 저지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여름 모 대학원생들이 중국의 고구려·발해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에 비치된 동전을 사진기로 찍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2백만 원의 벌금 부과를 받았다가 간신히 50만 원 선에서 타협”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중국정부는 과거 고구려의 수도-국내성(國內城)-였던 집안시(集安市)-중국 길림성 소재-의 고구려 문화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은 채 대대적인 도시 정비 공사를 벌여, 북한의 고구려 고분과 함께 2004년 6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마쳤다. 이는 북한의 고구려 고분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경우, 고구려사가 한국사로 공인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은 만주에 존속했던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 및 그 유적의 귀속권을 둘러싸고 한국(북한을 포함해서)과 중국 사이에서 빚어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만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한·중간의 역사·지정학적 갈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문제나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현대중국의 국가주의·민족관·역사관·한중관계사(韓中關係史) 연구,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인식 등은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동북공정은 현대중국의 민족관·영토관·국가관이 응축된 역사인식의 산물이다.

근대 아편전쟁 이래 여러 차례 서구세력(일본을 포함하여)의 침략을 받은 중국에서는, 외국의 침략행위나 일부 국가의 패권주의적 행태 혹은 일본의 우경화(右傾化)에 대해 민감한 반응 내지 적개심마저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는 근대 이후의 중국역사를 ‘침략(수탈) ↔ 저항’ 혹은 ‘매국(賣國) ↔ 애국(愛國)’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파악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통해 중국정부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의 열정을 고취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각종 매체나 연설 등을 통해 중국인민에게 ‘애국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애국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최대 국정과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정신문명(社會主義精神文明)’ 건설이 주창되고 있고, 그것과 맞물려 집체주의(集體主義)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애국주의와 집체주의가 강조되는 중국 현실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권이나 특수성, 개인의 자유나 개성 등이 ‘국민적·국가적·중화민족적(中華民族的) 분열’ 내지 ‘집체(集體)에 대한 불충(不忠)’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특히 1989년 천안문사태가 보여주듯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선진적인 동남 연해 지역과 낙후된 내륙지역(주로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문화대혁명 시기 자본주의 산물로 금기시되었던 민족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의 위화감이 불거지고 심지어 일부 소수민족들(신강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의 분리 독립운동마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관련하여, 해마다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중국동포(조선족)가 「재외동포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차별 철폐와 ‘국적회복운동(국적회복운동)’을 벌이고 있고, 매년 수많은 북한 탈북자가 조선족 사회에 은거하면서 조선족의 ‘중국국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남북한)에서는 20세기 이래 중국 및 한반도 중북부에서 존재했던 上古史(고조선·고구려·발해)를 우리의 역사라고 가르쳐왔고, 중국을 방문하는 일부 사람들은 공공연히 ‘만주수복론(滿洲收復論)’을 내세우곤 했다.

따라서 중국정부에서는 상술한 정황을 소홀히 취급할 경우 자칫 소수민족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롭게 과생시켜 중국의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는 날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북한 탈북자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변화(남북통일)가 급격하게 초래되어 중국 동북지구 사회의 안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강화시킬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분리 독립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신강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비롯한 서부지구 거주민에 대해서는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을, 조선족이 집거

하고 있는 동북지구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을 시작하고 있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서부지구를 개발해서 해당지구 주민의 생활향상을 통한 경제적 박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중국의 동북지구와 한반도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향후의 한반도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구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또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자가 경제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역사적·문화적·지정학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중국사회에는 “학문(역사를 포함하여)은 정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당론이나 국가정책에 배치되거나 그것의 골격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적 현실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정부가 표방하는 이념과 정책은 대부분 학계에 그대로 관철되어버리곤 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중국에서는 지식인이나 학자가 당론이나 국가이념에 반하는 독자적인 논리를 내세우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중국학계의 정론은 대부분 공산당이나 국가의 이론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술한 상황에서 정론화(定論化)된 중국(학계)의 민족관 및 역사관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 多民族國家論)’ 혹은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론(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국민족은 별개로 존재하는 다수 민족의 총합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한족과 이민족이 교호(交互) 작용하면서 융합된 ‘복합민족’ 혹은 “역사융합의 산물”인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고 지칭한다. 중국의 ‘중화민족’ 논리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 영토 내에서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중국민족이고 그들의 역사적인 활동은 모두 중국사의 범주에 속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 영토의 상당 부분에서 활동했던 고구려 민족이나 발해 민족은 모두 중국민족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역사적인 활동 역시 중국사의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논리는 개혁·개방 정책과 급속한 시장경제화에 따른 중국 내부의 다원적·분산적·원심적인 사회 기운과 맞물려 표출되고 있는 민족적·지역적 모순에 대한 중국적 해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중국민족의 ‘융화(融和)’와

중국역사의 ‘통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일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야기된 국정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영토통합’을 굳건히 하려는 중국정부의 교육지책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에서는 남북한이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몽골이 원사(元史)를, 신장 위구르족이나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서역사(西域史)를, 베트남이 진한(秦漢) 시기 백월(百越)과 남월(南越)의 역사를 각각 자국사로 공공연히 주장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중국사는 여기저기 찢겨질 것이며, 그에 따른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국정안정에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중화민족관’이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는 ‘이고위금(以古爲今)’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중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마치 “‘민족’이란 말은 개념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이며 권력 내용을 벗어난 민족 관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말을 연상시켜 준다.

II. 현대 중국의 ‘변강(邊疆)’관과 관심 지역

1. ‘변강’의 정의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변강’(변경)관을 알아보려면, 먼저 중국에서 정의되고 있는 ‘중국’의 개념과 ‘변강’의 개념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다. 현재 중국에서 공식화하고 있는 ‘중국’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국측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라는 개념은 “최초의 경사(京師)”, “화하지구(華夏地區)”에서 “한족(漢族)과 기타 민족이 세운 왕조에 의해 통할된 지구”로,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중화민족(한족과 기타 민족을 포괄함)이 공유한 국가”로 변화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개념의 변천은 중국 역사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 발전되어

온 데 따른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변강’의 개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국계(國界)에 가까이 있는 지방”으로 해석되는데, 일설에 의하면 “변경지(邊境之地)”, “국계 가까이 있는 영토”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공식화되고 있는 ‘변강’이란 개념은 “어느 국가의 비교적 먼 국경 가까이의 지구나 지대”로 해석되고 있다.

상술한 개념에 입각한 중국의 변강은 크게 지리적 개념과 역사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변강은 육강(육지의 변경)과 해양(바다의 변경)으로 구분된다. ‘육강(陸疆)’이란 “국계 내에 있는 일정 넓이의 지구”로서, 인접 국가와 맞닿은 국경선뿐만 아니라 자연·역사·문화 등 다방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육강에는 동북 지구(만주)의 흑룡강(남부의 하얼빈시 및 그 주변 지구 제외)·길림(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장백조선족자치현·집안시가 해당)·요녕(주로 단둥지구가 해당)의 3성, 내몽고자치구(그 중에 음산산맥 이북의 석림곽특맹·오란찰포맹·파언노이맹 등이 해당)·감숙성·신강 위구르(유오이)자치구·서장자치구·광서장족자치구(동북부의 계림·오주지구 제외)·운남성(주로 국경선과 인접한 지구가 해당)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협의의 육강은 “국경선과 맞닿은 변경의 현(縣)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접 국가와 국경선을 공유하지 않은 성구(省區), 가령 영하회족자치구·칭해성·귀주성 등은 “변강 지구”가 아니라 “변원지구(邊遠地區)”로 분류되고 있다.

역사적 의미에서 변강은 통일 다민족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함에 따라 점차 형성되고 고정되어 온 개념이기도 하다. 변강이란 현대 중국의 역사관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중국측 해석에 따르면, 중국은 진시황이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한 이후 여러 차례의 대일통(大一統) 국면을 출현시킨 적이 있으며, 특히 수·당 왕조의 강역 개척이 중원 전통의 정치·경제·문화 방면에서 변강 지구와의 연계를 확대시켜 “화융동궤(華戎同軌)”, “관대백만(冠帶百蠻)”의 형세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송·요·금 왕조 때에는 한족과 변강의 각 소수 민족 사이에 中華 의식이 증강되었고 내지와 변강 지구(즉 邊地) 사이에 개발과 교류가 진척되었다고 한다. 몽고족의 원조 때에는 소수 민족이 전국을 통일한 선례를 만들어 중원과 변강 지구 사이의 독특한 대응합을 가져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 종래의 전통 체제와 협애한 관념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다. 청조 때에는 전국의 대일통을 실현시켰

고 정책상으로 내지와 변지를 구분시켰는데, 그 때의 변강에는 동북 3성·내외몽고·신강·서장·운남·광서·대만·해남도 및 해남 제도(諸島)가 포괄되어 그것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강역 범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전란과 분열이 자주 있었지만 그것은 매번 다음 시기에 더 큰 범위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의 변강 문제를 토론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계(邊界)와 서로 연결한 성구(省區)를 대상으로 삼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역대 봉건 왕조 변계의 실제 정황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강을 논할 때 당대 중국의 변강과 역사상의 중국 변강 사이에는 역사적 계승성과 연속성이 있음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강(海疆)은 육강보다도 더 복잡한데, 현재의 국제법에 따르면 해강은 “영해기선(領海基線) 밖의 국가가 관할하는 해역”으로서 영해·전관경계수역·대륙붕 등 국가가 관할하는 해역과 도서 등이 해당된다. 일부 학자들은 해강을 “해안선과 인접한 성구뿐만 아니라 대륙 해안선에서 영해기선 사이의 해역”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주목받고 있는 변강

현재 중국의 변강으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육강은 동북 지구를 비롯하여 외몽고의 서북 지구·신강 지구이고, 해강으로는 남사군도(南沙群島)·조어도(釣魚島)이다. 이들 지구가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동북 지구의 경우 소위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적 귀속을 둘러싸고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당노오량해(唐努烏梁海)”(러시아 명칭 “당노도와(唐努圖瓦)”, 면적 17만km², 1913년 인구 통계 5만 2,300명)는 외몽고 서북 지구의 당노산(唐努山)에서 살언령(薩彥嶺)에 이르는 분지를 지칭하는데, 1921년 소련의 책동 하에 독립되었고 1944년 소련에 합병되었다가 현재 러시아의 일개 자치성으로 되어 있다. 이 지구의 귀속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신강 지구의 경우 과거 동돌궐의 영토로서 “동돌궐사탄(東突厥斯坦)” 혹은

“중국돌궐사탄(中國突厥斯坦)”으로 지칭되던 신강 남부의 타림분지 일대는 19세기 중엽 러시아에게 합병되었는데, 이 지역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해상 문제로서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조어도(釣魚島)이다. 남사군도는 길이 905km, 남북 넓이 887km, 면적 82.3km²로 18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사군도의 귀속권을 둘러싸고 현재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대만 등의 국가가 쟁론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7개의 산호섬에, 대만은 태평도(太平島)에, 베트남은 29개 섬(남해의 100만km²를 자국의 판도에 집어넣고 있음)에, 필리핀은 9개 섬(그 요구 범위는 54개 섬 41만km²)에, 말레이시아는 5개 섬(그 요구 범위는 12개 섬, 27만km²)에 군대를 진주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는 아직 섬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자신들의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발견된 후 각국 간의 분쟁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어도는 대만의基隆市(基隆市)에서 동북으로 92해리, 일본의 오키나와 군도에서 약 73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군도로서, 총면적은 6.3km²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다. 중국측 주장에 따르면 명초부터 조어제도(釣魚諸島)는 중국 영토로서 해방(海防)의 관할권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정부가 패배하여 일본과 마관조약(馬關條約)을 맺기 3개월 전에 일본이 이 군도를 점령하여 오키나와현의 관할하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이 패망할 경우 일본이 중국으로 빼앗은 영토를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 9월 8일 일본은 미국과 일방적으로 구금산조약(舊金山條約)을 체결하고 오키나와를 미국의 관할로 넘길 때 조어도도 같이 넘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에서는 이 조약이 중국의 참여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의 중심 테마인 동북 변경지구의 역사·지리 연구 실태 및 그것이 향후 동북아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추출해보자.

III. “동북공정”의 내용과 추진실태

1. “동북공정”의 출현 배경

소위 “동북공정”이라 일컬어지는 “동북 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는, 첫째 개혁 개방 이래 동북 변강(滿洲)에서 러시아·북한·한국·몽고·일본·미국과 중국 사이의 쌍방 관계나 다변 관계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점, 둘째 동북아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이 나날이 커지면서 동북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동북 변강 역시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지면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 셋째 일부 국가(사실상 남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의 연구 기구와 학자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 연구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몇몇 정객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릇된(?) 논리를 공개적으로 펼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측에서는 동북 변강 지구의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사회과학 연구의 신성한 사명”으로,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의 관계에 관한 학술 연구를 “사회과학의 불가피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최근의 북한 탈북자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한반도의 형세 변화 즉 남북통일이 동북지구의 조선족 사회에 초래할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정에 미칠 충격”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중국 당국에서는 ‘한반도의 형세 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전에 미칠 충격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을 축으로 1997년 하반기부터 중국 공안국변방부(公安局邊防部) 및 동북의 유관 기관의 지지하에 길림성의 중·조 변경(中·朝 邊境) 지

역에 대한 조사 연구에 착수했음은 물론 길림성당안관이 소장하고 있던 청대 중국·조선 관계 당안자료를 수집·정리하기 시작했다. 초기 작업에서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을 비롯하여 길림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동북사범대학 동북아 연구중심·길림사범학원 고적(古籍)연구소·중국인민대학 청사(淸史)연구소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관련 기관의 공작자들은 1998년 중국의 중앙 기관에 공작 보고서를 연이어 제출하였고 결국 중국 중앙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제기된 공작의 중점은 ㉠한반도 형세 변화의 추이 조사 연구, ㉡중국과 한국(북한 포함) 사이의 역사상의 논쟁점(기자조선·위만조선·고구려·발해·중조 변계(中朝邊界)의 형성과 계무(界務) 교섭, 19세기 중반 이후의 조선인의 만주 이민, 조선족의 형성사 연구), ㉢동북지구의 아편 문제·종교 문제·민족 관계 문제 등의 논쟁점에 대한 조사 연구, ㉣대규모의 북한 탈북자의 출현 가능성과 그 대책 등이었다.

그런데 상술한 조사 연구 작업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999년 중국 중앙 및 지방의 정책 기관의 지원하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던 “중국변강지구역사여사회연구운남 공작참(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雲南工作站)”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변강지구역사여사회연구동북공작참(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東北工作站)”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흑룡강·길림·요녕성)은 중공 중앙의 비준을 얻어 “동북변강역사여현황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소위 “東北工程”)이라는 대형 과제를 연합적으로 조직하여 2002년 2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5년을 기한으로 설정된 “동북공정”은 학과·지역·부문을 뛰어넘은 대형 프로젝트이다.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의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등에서는 “동북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동북공정영도협조기구(東北工程領導協助機構)’를 조직했는데, 고문은 중공중앙정치국 국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인 리티에잉(李鐵映)과 중공중앙위원이자 재정부 부장인 상화이청(項懷誠)이 맡고 있다. ‘영도협조기구’ 밑에 조직된 ‘영도소조(領導小組)’의 조장은 중공중앙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왕뤄린(王洛林)이, 부조장은 흑룡강성공산당위원회 부서기인 양광홍(楊光洪), 길림성 부성장인 취엔저쥬(全哲洙), 요녕성 부성장인 차오신량(趙新良),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하에서는 <변강중심>이라 약칭> 연구원 마따정(馬大正) 등이, 비서장은 <변강중심>의 주임이자 연구원인 리성(厲聲)이 각각 맡고 있다. 영도소조 밑에는 다시 ‘專家(전문가)위원회’가 조직되어 <변강중심>·민족연구소·세계사연구소·고고학연구소·과학연구국을 비롯하여 중국인민대학 청사(청사)연구소·흑룡강성 사회과학원·흑룡강성 선전부·요녕성 선전부·길림성 사회과학원·요녕성 사회과학원의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가위원회’ 예하에 설치된 ‘동북공정판공실(東北工程辦公室)’에는 <변강중심>의 관계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조직 계통을 살펴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변강 지구의 연구나 활동은 주로 <변강중심> 차원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유독 동북 지구(滿洲)를 다루는 “동북공정”에는 <변강중심> 및 중국사회과학원 예하의 여타 조직들이 총 망라됨은 물론 그 조직 범위를 뛰어넘어 동북 삼성의 행정 조직·공산당 조직, 관련 연구 기관, 대학, 사회과학원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의 정치 권력 서열 7위 안에 드는 중공 중앙위 정치국원 겸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을 비롯하여 중공 중앙위원 겸 국무원 재정부장이 고문을 맡고 있고, 중공 중앙위원 겸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이 영도소조 조장을, 성위 부서기나 부성장이 부조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상술한 두 가지 사실만을 고려해보아도 현재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에 기울이고 있는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정부장이 “동북공정” 조직의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공정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방대하리라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의 집행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2. “동북공정”의 주요내용과 추진목적

“동북공정”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포함한 연구 부문, ㉡외국의 관련 서적을 번역하는 부문, ㉢관련 당안(檔案)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하는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 연구란 역사적·학문적인 이론 연구를 의미하

며, 응용 연구란 기초 연구를 토대로 현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역사·문화적 방면에서 특정 지구의 귀속권 문제,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 외교 관계, 관광 전략 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논리 개발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동북공정”의 주요한 연구 내용과 지침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관계사 연구, ㉥동북 변강 사회 안정 전략 연구, ㉦한반도 형세 변화 및 그것이 동북 변강의 안정에 미칠 영향 연구, ㉧중국 동북 변강과 러시아 원동(遠東)지구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동북 변강과 러시아·소련의 원동지구 민족 정책 비교 연구, 중국과 러시아의 동단 변계의 연혁 및 계무(界務) 문제 연구), ㉨응용 연구 등이 있다. 위의 연구 내용을 보면 “동북공정”은 러시아와의 관계 연구(㉣)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남북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북공정”은 사실상 남북한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기초 및 응용연구-

<2002년도 과제(제1년차)>

번호	과제 명칭	신청인	완성시기
1	흑룡강통사	보 평	2002.04
2	20세기 중국 동북변강 문화연구	황정천	2002.06
3	호태왕비(好太王碑)1580年	경철화	2002.06
4	중국동북과 러시아(소련)경제관계사	장봉명	2002.09
5	발해국사	위국충	2002.09
6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장벽파	2002.09
7	러시아 동부이민 개발문제 연구(1861-1917)	왕효국	2002.09
8	발해사론	주국침	2002.09
9	중국동북 고(古)민족 발달사	이덕산	2002.09
10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中韓相關姓氏族源考論)	왕아현	2002.09

11	민국시기 동북지방정부 치변(治邊) 연구	호옥해	2002.09
12	근대중국 동북지구의 국제이민 문제연구	왕승금	2002.10
13	간명(簡明) 고구려사	손옥량	2003.01
14	동북민족구역 설치 연구	정니나	2003.06
15	역대 중국왕조의 동북치변 연구	서덕원,정병천	2003.06
16	국제법과 중국·조선 변경쟁의문제	초운명	2003.09
17	청대 변강 성진(城鎭) 연구	이치정	2003.12
18	『삼국사기』 상주(詳注) 및 연구	유자민,박찬규	2003.12
19	백두산지구 역사와 문화 및 그 귀속문제연구	유후생	2004.02
20	동북 한족 인구사(人口史) 연구	맹광요	2004.05
21	중국역대 동북변강 통치사상 연구	유신군	2004.06
22	발해이민의 통치와 귀속연구	무옥환	2004.06
23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연구	장 곁	2004.06
24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적지 조사연구	서일범	2004.08
25	러시아 원동지구의 중국인	장중해	2004.12
26	동북변강 다민족 문화교류와 융합	병 정	2004.12
27	만주국시기 동북변경충돌과 국경업무·교섭 연구	왕경상	2004.12

<2003년도 과제(제2년차)>

번호	과제 명칭	신청인	완성시기
1	근대 이래 러시아·일본의 중국동북 역사·지리에 대한 조사연구		
2	고구려 민족과 변천		
3	청말 동북변경의 조선족 이민과 간도문제 연구		
4	조선반도 민족, 국가의 기원과 발전		
5	말갈, 발해와 동북아 각국, 각족 관계사 연구		
6	명대 동북강역 연구		
7	명대 동북 변경민의 조선이민 연구		
8	고구려 족원(族源)과 강역		

9	동북변강 강역문제 연구		
10	발해 유적지 현상조사 연구		
11	중국과 러시아 동변 변계연혁 및 계무 문제연구		
12	변강의 담론과 담론의 변강		
13	러시아의 아태 정책 방향과 중·러 지역협작		
14	연변지구 국제 혼인 문제 연구		
15	동북변강 지역 사회안정 문제 연구		

<2004년도 과제(제3년차)>

번호	과제 명칭	신청인	완성시기
1	중국 국가·강역·변계 이론문제 연구		
2	고대 중국의 주변 제족·국(諸族·國)에 대한 관념과 근대적 변천 연구		
3	봉건시기 변속·속국·조공제도 연구		
4	동북변강역사의 형성과 변천 연구		
5	동북변강의 영토·국경교섭·국경조약 문제연구		
6	역대 동북변강이민과 이민정책 연구		
7	동북민족사 연구		
8	명청시기 동북의 족군(族群)의식과 변강사회 연구		
9	고조선의 역사·족원(족원)·문화 연구		
10	고구려 족원과 유민의 거취 문제 연구		
11	고구려의 귀속문제 연구		
12	발해의 족원과 유민의 거취문제 연구		
13	발해국의 귀속문제 연구		
14	조선반도 고문명의 기원		
15	조선반도의 국·족 연구		
16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지구의 민족정책 비교 연구		

<번역류 과제 현황>

번호	책임자 (主持人)	감수 (審校人)	과제 명칭
1	손계림	고명학	남북한 사학계의 고조선, 부여연구 논저 선편
2	권혁수	고명학	남북한 학계의 고구려 연구문헌
3	정영진	박찬규	국외 발해사 연구자료 회편
4	장연괴	우취홍	한글로 된 중요저작과 자료 번역
5	고경수	허능수	중국·조선 변경사-백산자료원 총서 선택번역
6	장 영	조려금	한반도 현상 연구
7	오건화	박성호	한국과 북한의 경제사회상황 비교
8	조립지	서창한	21세기 러시아 동부발전전략과 계획
9	장종해	조립지	아무스 연안지구의 중국인
10	장종해	진본재	90년대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원동지구 합작문제
11	왕복사	서창한	각종 조약·조문
12	숙봉림	학건항	중·러(소련)의 경제무역 관계사
13	왕 정	고문봉	자본주의시대 遠東 거주 중국노동자
14	림수산	요 풍	대흑할자도(大黑瞎子島)의 여진 고고유적

<당안류(檔案類) 과제 현황>

번호	책임자 (主持人)	소재단위	과제 명칭	완성시기
1	오원풍	중국제일역사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혼춘아문 당회편(東北邊疆歷史檔案選編· 琿春衙門檔匯編)	2005.12
2	조환림	요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요녕권 (東北邊疆歷史檔案選編·遼寧券)	2003.12
3	유봉루	길림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길림권 (東北邊疆歷史檔案選編·吉林券)	2003.12
4	전여정	흑룡강성당안관	동북변강역사당안선편·흑룡강권 (東北邊疆歷史檔案選編·黑龍江券)	2003.09

결국 상술한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연구 내용·연구 지침 등을 살펴보면, “동북공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즉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은 남북한의 일부 지도자나 학자들이 고조선·고구려·발해를 둘러싸고 이들 왕조나 역사를 한국사(혹은 조선사)의 일환으로 주장하며 동북 변경지구를 ‘한국(혹은 조선)의 고토(故土)’라고 주장해온 데 따른 대응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자칫 남북한의 역사 논리가 중국 동북의 조선족 사회에 초래할지도 모르는 민족 정체성의 혼란과 그에 따른 조선족의 이탈을 미연에 차단하여 동북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연구 과제들이 사실상 한국사에 관한 것이거나 한·중 관계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 러시아(소련) 관련 연구 역시 이들 국가가 원동지구에서 어떠한 민족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 변화, 즉 남북통일(주로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함)이 동북 지구의 조선족 사회 혹은 동북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정세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 및 남북한의 학문적·정치적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동북공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남북한에서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를 한국사(혹은 조선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함과 아울러 기존의 관련 연구 자료들을 발굴·정리·분석하여 그러한 역사가 중국사의 일환임을 강변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북공정”은 자칫 남북 통일 이후에 불거져 나올지도 모르는 국경·영토 분쟁에 미리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대응 논리를 조선족 사회에 주입시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에 중화민족 논리를 재확립·강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차적으로는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통일이 중국 동북 사회 혹은 조선족 사회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거기에 미리 대처함과 아울러 상술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동북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수 민족 문제의 돌출과 확대를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적 안정을 꾀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통과도 직결되어 있다.

IV. “동북공정”에서 드러난 ‘만주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고조선과 발해에 관한 중국측의 논리가 올려져 있지 않은 데 반해, 고구려 문제에 관한 논리는 상세하게 올려져 있다. 이것은 중국측에서 아직 고조선과 발해에 관한 논리를 정리하지 못했거나 정리되었다고 해도 굳이 인터넷에 올릴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반면에 고구려 관련 논리만을 상세하게 올려놓았다는 것은 중국측이 “동북공정”에서 ‘고구려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그것은 고조선이나 발해에 관한 역사적 정황이나 사실 고증, 논리 전개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반면에, 고구려 문제만큼은 장황한 논리를 내세워야 할 만큼 여러 가지 정황상 궁색한 처지에 있음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고구려사를 백제·신라와 함께 삼국시대로 파악하여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50년대 중국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조선 관련 부분에서는 예외 없이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가령 서덕원, 『세계중세사』(요녕대학교재과, 1956); 제사화, 『세계중세사강의』(1956); 손병영, 『세계중세사강의』(1956); (소)사묘락부 저, 동북사범대학역사계세계사교연실 역, 『세계중세기사』(중앙인민정부고등교육부교재편심처, 1954)에서는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신라·고구려·백제의 기본구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1962년부터 1963년에 걸쳐 중국 고등교육부 주관하에 편찬된 고등교육기관 세계사 교과서인 주일량·오우근 주편, 『세계통사』(전 4권)(북경: 인민출판사, 1962)에서도 고조선과 고구려를 한반도의 역사 범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편찬한 저서들, 가령 범문란, 『중국통사』(인민출판사, 1978); 전백찬, 『중국사강요』(인민출판사, 1963); 여진우, 『간명중국통사』(인민출판사, 1959); 상월, 『중국역사강요』(인민출판사, 1954)에서도 모두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변대학의 조선족학자들인 박진석·강맹산·박문일·김광수의 『조선간사』(연변교육출판사, 1986)에서도 고조선을 포함한 삼국을 한국사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삼국 가운데 고구려를 삭제했지만 얼마 전까지도 중

국의교부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란에서도 고구려를 백제·신라와 같은 삼국으로 표기하여 한국사의 범주로 소개해왔던 적도 있다.

그런데 상술한 관점은 1978년 중국 교육부 주관하에 14개 단과대학과 대학교가 공동 편찬한 『세계고대중세기사』나 1985년에 출간된 손의학 주편의 『세계중세기사』(요녕교육출판사)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고구려는 “중국에서 흥기했고 두 국가의 영토경계에 걸쳐 있는 고대민족”이며, “길림 집안을 중심으로 요동과 압록강 유역에 건립된 고대정권”이라고 서술되었다. 그리고 원래 “고구려는 한국(조선)의 역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학자들의 관점도 변했다.

강맹산에 따르면, “고구려사는 우선적으로 중국역사에 속하지만 또한 조선역사에 속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그는 고구려가 수백 년간 중국 동북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북부지역에서도 활동했다는 점, 서기 427년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 역사의 1/3 기간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점, 고구려족이 신라족과 융합되어 오늘날의 조선족과 혈연관계 및 문화적 계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담기양은 “역사상에서 압록강 이북에 있던 시기의 고(구)려를, 우리는 중국 경내의 일개 소수민족이 건립한 국가로 간주한다. 그러나 5세기에 이르러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의 고(구)려를 더 이상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의 정권으로 볼 수는 없으며 주변국가의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구려의 압록강 이남의 영토뿐만 아니라 압록강 이북의 요수 동쪽의 영토 역시 주변국가의 영토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민도 “비록 고조선과 고구려 영토는 모두 고대 중국에 속한다 해도 각각의 역사를 소개할 때는 고구려 역사를 조·중 양국의 역사로 인정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판도 내에 있는 고대 민족 혹은 국가는 모두 중국 고대의 민족 혹은 국가로 간주되어야 하며, 오늘날 한반도 판도 내의 고대민족 혹은 국가는 모두 조선 고대의 민족 혹은 국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 전까지를 중국사로, 평양 천도 이후를 한국사로 보는 ‘일사양용(一史兩用)’의 사관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학계에서는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다.” 라는 다민족 통일 국가론이 강조되면서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펼쳐졌던 이

주장은 최근 들어 더욱 공식화·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7월에는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인민일보』에서조차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의 고구려 및 발해에 대한 범주 규정을 살펴보면, 고구려(중국 명칭으로는 ‘고려’)는 “중원 한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제국의 변속(藩屬)지방 정권”으로, 발해는 “말갈족을 주체로 한 민족 정권인 동시에 당조(唐朝) 중앙 정권의 책봉을 받아 당왕조에 예속된 지방 정권” 혹은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 “당현종에 의해 발해군왕으로 제수받은 속말부(粟末部)의 수령 대조영이 세운 속말말갈의 지방정권”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중국공정”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논의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중국측이 “동북공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고구려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 정권을 “西漢(前漢) 현토군(玄菟郡) 고구려현 경내의 변강 민족이 수립한 지방 정권”으로 규정짓고, 고구려의 판도가 서한의 강역 내에 존속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고구려는 중국 변강 지구의 소수 민족 정권’으로서 중화민족의 역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국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고구려 정권은 “남하한 일부 부여족 일파와 서한 고구려현 경내의 기타 민족이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하여 정권 수립 주체가 한민족과는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고구려 민족의 源流(族源)와 관련하여 “부여족 일파, 서한 현토군 고구려현 경내의 변강 민족을 기반으로 옥저·소수맥(小水貊) 등의 예맥족·한족·선비족·숙신인 등이 흘러들어 이들 민족이 점차 융합되어 고구려 민족이 되었다”고 하여, 고구려 민족의 구성원은 “모두 서한 시기 동북 변강 지구에서 활동한 민족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구려 민족은 한반도의 한민족과는 완전히 무관한 중국 변강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 정권은 “초기에 서한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었고”, “고구려의 활동 지역이 중국 역대 왕조의 통치 지구였기 때문에 唐朝가 고구려를 ‘통일’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예맥설·부여설·고이설·상인설·염제설 등이 있지만, 이들 민족 모두 고대 중국 경내의 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 민족의 귀속성이 바뀔 수는 없다”고 하여 고구려 민족이 한민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의 활동 중심(주로 도성)이 몇 차례 옮겨져 후기에 도성(평양성·장안성)이 현재의 중국 강역 밖(한반도)으로 옮겨졌지만, 그 지역 역시 한사군의 관할 범위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구려의 활동 범위는 한사군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는 “줄곧 중국 역대 중양 왕조와 신속(臣屬)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관계를 끊고 ‘중국’ 밖에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당시 중국의 왕조와 신속 관계를 맺은 모든 정권은 기본적으로 중국사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신라·백제·일본은 물론이고 고려나 조선 역시 거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리고 당조가 고구려를 ‘통일’한 후 일부 고려인(고선지·왕모중 등)은 ‘조국’(여기에서는 ‘중국’을 뜻함)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 멸망 후 대다수의 고구려 유민은 한족으로 흡수·융합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70여 만 명에 달했는데 당태종과 고종 때 약 30만 명의 유민이 중원(북경·안휘·강소·호북·산서·섬서·감숙·사천 등지)으로 옮겨갔고 이들은 점차 한족에 융합·흡수되었다는 것이다. 고구려 유민 가운데 약 10만 명은 투항·포로 등의 형태로 신라로 들어가 흡수되었고, 또 다른 10만 명 이상은 말갈의 발해에 망명하여 발해의 구성원이 되었다가 금대(金代)에는 여진족에게 흡수되었고 금조 멸망 후에는 대부분 한족에게, 나머지 1만여 명의 유민들은 북방의 돌궐족에게 융합·흡수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환’이라는 상술한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중국사의 범주에 속한) 고구려는 (한국사의 범주에 속한) 고려, 그리고 조선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양자의 역사적 연속성이나 계승성·상관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우선 고구려의 명칭과 관련된 것으로 “고구려 정권이 존재했을 때 史家들은 ‘구려(句麗)’·‘고려(高麗)’로 기술하였고, 수·당 시대에는 사가들과 고구려인들이 습관적으로 ‘고구려’를 ‘고려’로 부르면서 ‘고려’라는 명칭이 사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의 약칭 혹은 이칭(易稱)’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그것이 멸망한 지 250년 후에 등장한 한반도의 ‘왕씨 고려’(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와는 하등 계승 관계가 없으며, 왕씨 고려의 활

동 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약칭인 고려와 왕건의 왕씨 고려는 시간적으로 보나 왕족의 성씨로 보나 예속 신민의 구성 실태를 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고씨 고려와 왕씨 고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씨 고려와 왕씨 고려 사이에는 250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했고, 왕씨 고려의 강역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강역을 계승했으며, 그 구성원도 대부분 신라인(진한·변한)과 백제인(마한)이라는 한반도 남부의 삼한인이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공정”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한민족이라는 것마저 부정한다. 즉 “왕씨는 서한 당시 낙랑군의 귀족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왕건은 서한 낙랑군 ‘한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조차도 우리 민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술한 양자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역사책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약칭 고려와 왕씨 고려의 명칭이 같았기 때문에, 요즘의 (중국)사람들은 이 양자가 전후 계승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 “고구려 역사에 대한 인식상의 혼동을 초래했는데, 사실 이 양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고려 왕조가 고구려의 맥을 이은 왕조로서 이 양자가 서로 역사적 계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의 역사관을 바꾸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동북공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가 ‘중국 동포’라고 주장하는 조선족의 혈통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공정”에 따르면 “현재의 조선족은 고구려 멸망 후 장시간 민족적 융합과 교류 속에서 신라인을 주체로 형성되었는데, 이 융합 과정에는 한반도에 남아 있던 소수의 고구려인·말갈족·한족이 섞여들게 되었으며, 여기에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의 일부 조선인이 중국으로 넘어와 융합되면서 오늘날의 조선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조선족은 고구려 멸망부터 19세기 중엽 이전까지 신라인·고구려인·말갈족·한족이 섞여서 이루어졌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으로 넘어온 일부 조선인이 섞여서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선족은 고구려 멸망 이후 천 년 이상 동안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셈이 된다. ‘과연 그렇게 해서 형성된 조선족이 한족 탐바귀에서 천 년 동안 자신들의 민족적 풍습과 언어를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차지하더라도,

그러한 역사 논리가 자신들의 혈통을 한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자못 궁금해진다. 이러한 非역사적 정치 논리는 이미 “동북공정”의 목적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 즉 남북통일 이후의 정세가 중국 동북 지구 및 조선족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여 소수 민족 문제의 새로운 돌출을 막아보려는 ‘의도된 관제(官制)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중심>에서 “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 지구의 안정에 미칠 충격”에 관해 조사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들의 혈통을 새롭게 부여하려는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형세 변화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요녕성 단둥 지구로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인은 중국 고대의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 동북 지구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유물·유적은 왕씨 고려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문물·고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 중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주’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점 역시 중국측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만주라는 지명은 적어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까지는 사용되고 있었다. 그 예로 만주에서의 중국 공산당 조직 명칭이 ‘중공만주성위(中共滿洲省委)’였다는 점, “1946년 1월 만주에서 조직된 동북민주련군(東北民主聯軍)의 4대 군구(軍區) 명칭이 동, 서, 남, 북만군구”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만주라는 용어가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을 환기시키거나 중국의 온전한 영토가 아니었다는 과거의 각종 견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용어 대신 ‘중국 동북 지구’로 지칭하고 있다. 이 명칭은 ‘만주가 중국의 확고 부동한 동북 지구’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오늘날 중국정부의 ‘만주관’이 이러할진대, 한국인(북한 사람을 포함해서)들이 만주를 ‘고구려·발해의 고토(故土)’로 인식하고 그 지역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중국 당국의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구려·발해의 유적지를 찾는 한국인들은 중국인의 눈에 중화민족을 분열시키거나 중화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을 중국에서 이탈시키려는 ‘반민족적 범죄 집단’처럼 비추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중국 조선족에 대한 한국의 흡인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그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을 예측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북한 탈북자들의 급증 현상 등), 한반도 통일 이후의 만주 및 조선족에 대한 통일 한국의 영향력을 짐작해 본다면, 만주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은 분명 중국 당국의 경계심을 증폭시킬 것이고 그들의 대응 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화민족 분열주의자(韓民族)의 활동을 분쇄하라!” 이것이 만주의 역사 유물 및 조선족을 둘러싼 중국정부의 일관된 정책일지도 모른다.

“동북공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중국에서의 고구려사 연구는 한국사와는 무관한 중국사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혈통이 고구려 멸망 이후의 다수 민족의 혈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의 민족 정체성마저 왜곡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필요적 관점, 즉 중화민족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국가·사회적 통합과 그를 통한 체제의 유지·안정이라는 거시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의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귀속권을 둘러싼 한·중 간의 논쟁점이나 조선족에 대한 흡인 요소, 영토 관련 분쟁거리나 중화민족 단결에 해로운 논조를 송두리째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중화민족의 각 민족이 이루어낸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현재적 편의의 사관이나,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당연히 중국인이며 중국 민족”이라는 민족관은 모두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범주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의 귀속권을 일방적으로 강탈해간 ‘영토 지상

주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 이후 형성된 '영토' 혹은 '국경' 개념을 전근대 시기까지 소급해서 원래부터 나뉘어 있지도 않았던 영역을 자의적으로 나뉘버리거나, 책봉-조공 관계를 근거로 해당 민족을 중국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전근대적 화이관에 입각한 '현대판 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나 논리적 정합성에 근거한 역사관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고대 민족의 역사문화유산(즉 고구려의 문화유산)에 대한 배타적인 통할권을 매개로 국가적 힘의 논리를 앞세운 '중국관 문화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시켜 양 지역 사이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동북지구(즉 만주)에 야기할 소수 민족 문제(통일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로 인한 조선족의 정체성 혼란이나 이탈, 분리 독립 운동의 가능성 등)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현존의 다민족 통일 국가로서의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공정"에서 표출된 논리는 애국주의(중화주의와 사회주의를 모체로 하고 있음)·집체주의(集體主義)를 사상적 토대로 하여 최근 중국 사회에서 분출하고 있는 '국가주의' 추세와 부산물로서 중화우월주의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공정" 논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세계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의 자신감 회복을 반영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맹주였던 자리를 다시 탈환해 보려는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파생된 "동북공정"의 논리는 학문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사회주의 사회의 속성상, "학문은 정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오랜 논리 속에서 탄생한 '학문적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의 논리는 주변 민족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학문 교류 활동이나 관련 유물들에 대한 공동 조사 등을 전제로 해서 도출해낸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관련 고대 민족의 유산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급조해낸 '정치사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논리는 관련 주변 민족 국가로부터 역사적 당위성을 획득할 개연성을 거의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사회 특히 중국과 한반도 사이

에 문화적·정치적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공정”의 논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바야흐로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바야흐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라는 슬로건 속에 압축된 중국의 국가주의가 역사·문화 영역에도 침투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 ‘문화적 전운(戰雲)’을 드리우면서 ‘역사전쟁’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일본의 우경화’ 못지않게 ‘중국의 국가주의’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민주주의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 사회나 언론이 존재하는 데 반해, 중국의 경우 시민 사회나 언론 등이 강고한 국가주의·집체주의의 체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파생된 잘못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우리의 안이한 자세는 자칫 민족 정체성마저 남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민족 국가를 자극하거나 역사 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적이 없었는지, ‘동아시아 역사 공동체’나 동아시아의 평화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새김질할 때이다. 이 시점에서 절제되지 않은 ‘애국적’ 행위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애국’ 혹은 ‘애국주의’는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작동할 때에만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인 애국’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더듬어보고 민족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이다!

고구려사의 전개과정

강사 : 김현숙 박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I. 들어가며
- II.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측의 주장과 한국측 논리
 - 1. 종족문제
 - 2. 건국과 영역
 - 3. 조공책봉문제
 - 4. 수·당(隋·唐)과의 전쟁
 - 5. 계승문제
- III. 고구려사의 전개과정
 - 1. 흘본(忽本)-흘슬골성(紇升骨城)에서의 건국
 - 2.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으로의 천도
 - 3. 고구려의 발전
 - 4. 고구려의 분열과 멸망
 - 5. 고구려유민들의 행방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 동북공정의 내용과 배경,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II.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측의 주장과 한국측 논리

1. 종족문제

- 중국측 ; 고구려의 종족은 중국 고대 소수민족의 하나, 전욱 고향씨(顛頊 高陽氏)나 염제족의 후예
- 한국측 ; 중국 정사에 고구려 건국 주체세력을 예맥족으로 기술, 예맥족은 한민족 구성종족

2. 건국과 영역

- 중국측
 - 고구려는 중국 땅에서 건국하였고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 있었다.
 - 고구려의 건국지는 한군현에 속함.
 -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사 기간(427-668)은 241년, 중국 영역내 기간(기원전 37-427)은 464년으로 2배가량.
 - 고구려 영역 약 2/3 가량이 현 중국의 영토로서 대세상 중국사에 귀속
- 한국측
 - 고구려의 성장·발전은 한군현의 퇴출 및 군현과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짐
 - 평양일대는 고조선의 영역기반이자 중심지로서 고구려 선사(先史)로서의 역사적 성격을 지님

- 평양은 역사적으로 고대 중국의 영역이란 중국측 주장은 그들 자신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도 모순되는 논리

3. 조공책봉문제 - 고구려는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

- 중국측 ; 역대 중국사서에서는 중화관에 입각하여 고구려를 신속국(臣屬國)으로 보고 양국의 외교관계를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으로 기술, 이를 문맥대로 인정
- 한국측
 - 조공책봉제가 확대되는 남북조시기에 남조와 북조에 모두 조공, 외교형식에 불과
 - 광개토태왕비에 보이는 천하관은 고구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증거
 - 중국과 백제, 신라, 왜와의 조공 책봉관계와 고구려의 그것과는 차이가 없음
 - 고구려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함은 모순

4. 수·당(隋·唐)과의 전쟁

- 중국측 ;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의 통일전쟁
- 한국측
 - 려·수, 려·당 전쟁은 대외전쟁
 - 중국 중심 국제질서구축에 따른 세력권의 충돌현상

5. 계승문제

- 중국측
 - 고구려유민은 중국에 귀속되었다.
 - 고구려의 유민은 대다수 한족으로 편입되었으며,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와 왕건이 세운 고려는 족속이 서로 달라 계승관계가 없다.
- 한국측

- 자진해서 신라로 내려간 고구려유민들을 주목해야 함
- 신라의 一統三韓 의식이나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식 분명함
- 고려는 국호에서부터 고구려 계승의식 표방. 당시 중국인도 그대로 인식
- 고구려 역사에 대한 계승의식은 고려만 가짐 → 『삼국사기』, 『삼국유사』

Ⅲ. 고구려사의 전개과정

1. 홀본(忽本)-홀슬골성(紇升骨城)에서의 건국

가. 국호

- 구려(句麗)=구루(溝婁), 홀(忽), 고을=성(城)이란 뜻. 높은 수식어. 고구려=큰 고을.

나. 종족

- ① 사서에는 고구려의 종족명으로 예(濊), 맥(貊), 예맥(穢貊) 등이 나옴.
→ 예족설, 맥족설, 예맥족설, 예맥족에서의 분화설, 원래는 예족인데 명칭상 맥족이라는 설 등 다수.
→ 중국측 ; 전욱 고양씨(顓頊 高陽氏)의 후손인 고이(高夷)를 고구려의 先人으로 설정-경철화(耿鐵華)-하고 서주(西周)대에 이미 주에 신복(臣服)하면서 조공을 했다고 파악하고(손진기), 고구려왕실이 고양씨의 후예임을 자처하여 ‘高’를 성씨로 삼았다고 함(김약)
- ② 고구려를 ‘맥’이라 표현한 것은 기원 이후의 중국사서에 집중. 『漢書』 왕망전(王莽傳)에서 ‘高句驪侯 驪(고구려후 추)’의 집단을 ‘맥’ 혹은 ‘예맥’이라 칭한 이래 『三國志』, 『後漢書』 등에서 기원전 75년 현도군의 퇴축을 ‘이맥(夷貊)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기록하여 구려와 맥을 관련시킴. 대수유역에는 대수맥, 소수유역에는 소수맥이 거주한다고 기록.

- ③ 중국 북방의 돌궐인도 고구려를 ‘피크리’ 즉 ‘맥구려’라 부름. ‘맥족의 구려’. 몽골공화국 오르혼 강변에 있는 고돌궐 비문
 → 건국신화의 부여출자설 등과 연결해 볼 때 원고구려의 주민은 토착민인 맥족과 이주민인 예족이 결합됨. 이후 영역확장 과정에서 다양한 종족편입→다종족 국가로 됨.

다. 건국신화

- ①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魏書(위서)』 高句麗傳 ; 북부여 출자설
- ②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삼국유사』,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 동부여 설화가미 → 전체 줄거리는 유사. 天帝(日月之子)와 水神(河伯之孫)의 혈통을 이어 받은 주몽이 건국. 천손족. 동맹 축제의 행사. 집안시에 있는 통천굴.
- ③ 백제 건국설화 서두 부분의 주몽설화
- 졸본부여의 사위로서 왕위에 오름.
 -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인 우태(優台)의 아내였던 연타발의 딸 소서노(召西奴)와 결혼한 다음 건국.
- 압록강 중류유역 일대의 토착세력의 성장, 이주민 집단의 유입, 토착세력과 이주민 집단의 결합.
- ⇒ 고구려의 건국신화의 완성은 4~5세기경. 북부여지방의 확보, 부여계의 정통성 계승 주장. 당시 고구려의 천하관, 왕권강화 등과 관련.

라. 건국시기

- 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 기원전 37년
- ② 북한 동명왕릉 안내문 ; 기원전 277년
- ③ 광개토왕릉비문 ; 17세손 (『삼국사기』 -광개토왕은 19대왕, 세대수는 13세손)
 → 고구려의 성립시기는 관점에 따라 주몽집단의 등장, 나부체제의 성립, 현도군 퇴축, 소국 연맹체의 형성, 예군남려 집단이나 구려의 등장, 나집단의 성장 등 여러 시점에 파악 가능. 그러므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705년설과 고자묘지명의 708년설 외에 800년설이나 900년 유국설 등도 가능.

마. 건국자 주몽과 그를 도운 여인들

- 주몽, 유화부인, 소서노, 예씨(禮氏) 부인

바. 최초의 수도 환인(중국 요녕성 환인) - 흘슬골성

- ① 압록강 중류일대, 혼강유역 - 비류수
 - ② 서북으로 요동지역, 동으로 동해안 일대로 통하는 동서 교통로상의 중간지점. 서남으로 황해, 남쪽으로 대동강, 재령강 유역의 평야지대, 북쪽으로 송화강 유역의 대평원지대나 요하 상류 방면의 초원지대로 통하는 곳.
 - ③ “큰 산과 깊은 골이 많고 넓은 들은 없어 부지런히 농사지어도 식량이 충분치 못했다” ; 그러나 압록강과 비류수 및 그 지류인 독로강, 자성강, 혼강 유역에는 충적지대가 곳곳에 형성. 통구지역이나 환인현 소재지는 상당히 넓은 분지. 만주 일대에서 가장 온난하며 강수량도 풍부해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 → 신석기 시대 유적도 산재. 청동기 시대에는 토기와 석기제작기술이 더욱 발전(혼강 지류인 대위사하 연안의 이도외자(二道崴子) 유적에서는 대량으로 토기와 석기제작). 이 지역 청동기 문화는 요동~청천강의 고조선문화나 송화강유역 서단산(西團山文化)와 비슷한 양상.(교류)
 - ④ 고고학적 현상 ; 압록강 중류유역의 주민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적석묘를 축조, 기원전 2세기경부터 주변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 문화형성.
- 환인의 고구려 유적 ; 오녀산성(五女山城), 장군무덤, 하고성자(下古城子)와 상고성자묘군(上古城子古墓群)

2.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으로의 천도

- 유리왕 22년(서기 3년)에 환인(졸본)에서 집안(국내성)으로 서울을 옮김. 이후 장수왕 15년(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424년 간 고구려의 수도.
- 대표적인 유적 ; 국내성(國內城) = 집안현성(集安縣城) 유적, 장군총, 태왕릉 등의 적석총, 오희분 4호묘·5호묘, 모두루총, 사신총 등의 벽화고분, 광개토태왕비, 국동대혈 등
- 환인과 집안의 지리적 위치 : 압록강 중류일대, 혼강유역. 서북으로 요동지역,

동으로 동해안 일대로 통하는 동서 교통로 상의 중간지점. 서남으로 황해, 남쪽으로 대동강, 재령강 유역의 평야지대, 북쪽으로 송화강 유역의 대평원지대나 요하 상류 방면의 초원지대로 통할 수 있는 곳.

- 427년 장수왕의 평양천도

3. 고구려의 발전

-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 태왕(太王)과 성태왕(聖太王), 천손(天孫)의식, 독자적인 천하와 천하관 구축
- 영역의 확대 ; 4~5세기의 고구려
- 북위(北魏)의 이오, 「요동남일천여리 동지책성 남지소해 북지구부여(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했다고 함.
- 대체로 서로 요하, 북으로 길림, 동으로 혼춘을 포함한 연해주, 남으로 아산만-경북북부 지역-영덕 선으로 연결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영역화 → 이오의 표현처럼 고구려의 民戶는 3세기 중엽의 세 배에 이르렀다.
- 광범위한 영역, 다양한 주민구성 → 다종족 국가
- 고구려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 ; 광개토왕비, 집안의 장군총, 태왕릉을 비롯한 적석총과 벽화고분 등의 석실분토분들, 평양의 안학궁성과 대성산성, 장안성,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성, 충북 청원군 부강리의 고구려유적, 충북 중원군 가금면에 있는 중원고구려비,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 등. 요동지역 등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산성유적 등.

4. 고구려의 분열과 멸망

- 집권체제동요와 귀족연립체제로의 전환
- 왕위계승분쟁, 귀족세력분열, 정국불안, 지방세력이탈
- 국제정세의 변화 ; 북위의 분열, 북제·북주로 인한 긴장고조, 돌궐성장과 고구려 침입, 나제동맹군의 한강유역공취(551년)

가. 려·수 전쟁

- 수의 중국 통일 ; 동북아의 세력 균형 깨짐
- 평원왕 32년 양식축적, 천리장성과 동북 장성의 축조
- 4차에 걸친 수의 침공, 수의 멸망
- 수의 침공원인 ; 중화 중심의 천하관.
- 승리원인 ; 전국민의 단결, 고구려의 성 중심 방어체계, 효과적인 전략전술. 보급로 문제 및 내부분열 등.

나. 려·당 전쟁

- 618년 이연이 당 건국, 628년 중원 통일, 629년 동돌궐 굴복.
- 당 태종은 '황제천카간'자칭. 중원과 막북의 최고군주임을 자임.
- 631년 고구려의 경관(京觀)파괴, 635년 토욕혼 정복, 640년 고창국 멸망.
- 642년 10월 연개소문의 집권, 신라 김춘추의 평화협정제의
- 나당 군사동맹의 결성.
- 644년 10월 당태종의 조칙 ; 연개소문의 국왕 시해가 침공 명분
- 당의 실제 침공 이유 ; 중국 중심의 천하 구축.
- 려·당 전쟁 패배원인 ; 국제정세의 변화, 지배층의 내분, 나당동맹

5. 고구려유민들의 행방

- 669년 호강(豪強)한 민호 2만8천2백호를 江, 淮 이남 및 山南, 병주(并州), 량주(涼州) 이서의 諸州로 강제이주시킴. 고구려 말기의 戶數는 69만7천호. 즉 전고구려인의 약20분의 1이 이주.
- 부흥운동 ; 670년 검모잠 일파의 부흥운동, 안시성 등지에서의 반당봉기, 670년 신라장군 설오유와 고구려장군 고연무 연합군의 당 공격
- 676년 고장(高藏)을 요동도독조선군왕에 봉하고 내지로 옮겼던 유민들을 다시 귀환, 남생도 안동부 관리로 파견. 즉 이이제이책, 자치와 견제의 이중지배책 → 고장의 부흥도모 → 발각 후 다시 천사(遷徙)
- 고구려유민의 행방 ; ① 신라로 간 유민 ② 요동방면간류민 → 발해건국 ③ 당

- 내지로 강제이주된 유민 ④ 일본으로의 이주민 ⑤ 돌궐 등 유목사회로의 이주민
→ 고구려인의 한족에로의 흡수문제와 유민 자신의 자의식
- 고구려 유민의 삶 ; 보장왕과 그 후손들, 연남생과 연현성, 고죽유, 옥소, 고선지, 이정기, 대조영의 경우

IV. 나오며

- 역사계승의식 ; 『삼국사기』 등의 한국사서와 『송서』 등의 중국사서
- 한국사상에서의 고구려사의 의미
- 동북공정에 대한 대책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과 벽화의 세계

강사 : 김일권 박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I.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목록
 - 1. 고분의 나라, 고구려
 - 2. 벽화의 왕국, 고구려
 - 3. 돌의 나라, 산성의 왕국 고구려
 - 4.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과 목록 현황
- II. 고구려인들의 삶과 생활문화
 - 1. 고구려의 신년축제문화, 동맹제천 국중대회
 - 2. 고구려인들의 놀이문화
 - 3. 수레의 나라, 고구려
 - 4. 여성의 나라, 고구려
 - 5. 고구려인의 의식주 생활문화
- III. 고구려인들의 상상력과 신화·천문·종교의 세계
 - 1.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천손사상
 - 2. 천손의 하강과 흥본성(오녀산성)
 - 3. 고구려의 신화와 종교
 - 4. 천문의 나라, 별자리의 왕국 고구려
 - 5. 고구려의 천하와 황룡 우주론

I.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목록

1. 고분의 나라, 고구려

가. 고구려가 남긴 고분유적들

-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에는 천오백년을 견뎌낸 수많은 고분들로 꽉 들어차 있다.
- 만주와 북한의 고구려 무덤 13,000기 : 만주지역 1966년 당시 당시 11300기(봉토석실분 4321기, 적석묘 2886기 등)였던 것이 최근 1997년에는 3928기가 소실 되어 6854기 가량 현존
- 환도산성 산성하 무덤떼, 국내성 우산하 무덤떼, 칠성산 무덤떼 등
- 고구려의 전통적 묘제는 돌로 쌓아 만든 적석묘 → 봉토적석묘 → 봉토석실묘 (벽화묘)
- 수많은 고분유적들은 문헌기록이 적은 고구려의 역사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주요 사료로 활용

나.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된 고구려인들의 생사관

-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도시
- 삶과 죽음의 비분리 : 고구려인들은 결혼 직후부터 장례용 수의를 마련하였다.
- 초상에는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지만, 장례에는 풍악을 울리며 춤추고 노래한다.
- 고구려의 후장(厚葬) 풍속 : 사후 공간인 무덤의 대형화, 4세기 이후 벽화무덤 유행
-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소를 만들고 부모와 남편은 3년상, 형제는 3개월상
- 생전에 입던 의복, 패물, 수레, 말 등을 무덤 옆에 쌓아두어 장례에 참석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2. 벽화의 왕국, 고구려

가. 지금까지 103기의 벽화고분이 발견

- 압록강 중심의 환인·집안지역 30기
- 대동강 중심의 평양·안악지역 73기
- 위·진·수·당대 중국지역 벽화고분은 86기 가량

현재 고구려의 수많은 무덤 가운데 벽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덤은 대략 100여기 이상이며, 4세기에서 7세기 사이 약 30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축조되었다. 비슷한 시기인 위진수당의 700년 동안(3~10세기) 그 넓은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이 80여기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량이다.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크게 두 지역에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고구려 전반기의 수도 국내성이 자리하였던 압록강 중류 집안시 지역에 현재까지 30기가 발견되었다. 집안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 위치한 곳으로, 2대 유리왕 22년(서기 3년) 겨울 10월에 고구려의 건국지였던 흘본(졸본)의 오녀산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424년간 국가를 경영하던 곳이다. 오녀산성이 있는 지금의 환인지역에서 미창구장군묘라 불리는 벽화고분이 1기 발견되었으므로, 만주의 집안과 환인 일대에 모두 30기가 있는 셈이다. 다음 장수왕 15년(427년)부터 241년간 고구려 후반기의 수도였던 평양 일대에 안악 지역 13기를 포함한 73기가 발견되었다.

나. 고구려 벽화의 시대 구분과 주제

- 제1 벽화시대 : 300-400년대 인물생활풍속도 주제

:동명왕릉, 안악3호묘, 감신총, 집안12호무덤, 씨름무덤, 안악1호묘, 연꽃무덤, 덕흥리벽화묘, 용강대묘, 수산리벽화묘, 안악2호묘 //만보정벽화묘, 평양역전벽화묘, 태성리2호묘, 복사리벽화묘, 태성리1호묘, 마선구1호묘, 집안산성밑 무덤떼 332호묘, 거북잔등무늬묘(귀갑총), 산련화총, 고산동7호묘, 고산동10호묘, 동암리벽화묘

- 제2 벽화시대 : 400-500년대 생활풍속도 + 사신도(평양) /장식무늬(집안) 병행
:약수리벽화고분, 춤무덤(무용총), 팔청리벽화고분, 동근무늬무덤(환문총), 세칸무덤(삼실총), 장천1호분, 별무덤(성총), 천왕지신총, 대안리1호분, 쌍기둥무덤(쌍영

총), 사냥무덤(수렵총),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 진파리4호분(평강공주와 온달장군묘로 추정)

○ 제3 벽화시대 : 500-600년대 사신도 중심 주제

:호남리사신총, 개마총, 진파리1호분, 통구사신총, 집안5회분 4호묘, 집안5회분 5호묘, 내리1호분, 강서중묘, 강서대묘 //요동성총, 장산동1·2호분, 집안산성하 고분군 983호분, 고산리9호분, 고산리1호분

3. 돌의 나라, 산성의 왕국 고구려

○ 흙의 문화와 돌의 문화

○ 고구려식 성벽쌓기 : 들여쌓기, 육합쌓기, 그랭이공법, 썰기돌, 치, 옹성, 해자

○ 적석무덤, 석실벽화

○ 광개토태왕비 : 4면 1775자. 높이 6.39m(1면 1.46m, 2면 1.35m, 3면 2m, 4면 1.48m)

○ 장군총(장수왕릉 추정) : 31m×30m×12m. 특대형 계단 적석 석실묘

4.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과 목록 현황

○ 1998. 7. 북한의 세계유산 협약 가입

○ 2000. 5. 북한의 “고구려고분군”외 6개 유적을 유네스코 잠정목록으로 제출

○ 2002. 2. 중국의 “동북공정” 특별 프로젝트를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에 설치

○ 2002. 중국측의 고구려유산 잠정목록 제출

○ 2003. 1. 중국의 “고구려 수도, 왕족과 귀족의 무덤”을 세계유산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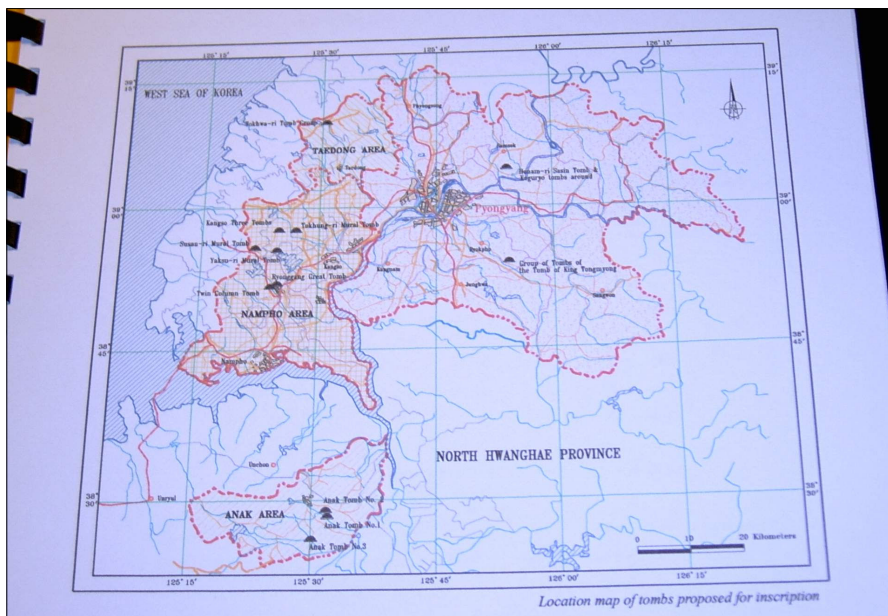
○ 2003. 7. 세계유산위원회 제27차 회의(파리)에서 북한 신청의 등재 보류

○ 2004. 7. 1. 제28차 세계유산목록회의(중국 소주)에서 북한과 중국측 모두 등재 의결

가. 북한의 등재목록 : “고구려 고분군”(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

번호	고분군	고분이름	고분 갯수	벽화무덤
1	평양시 역포구역 동명왕릉과 진파리고분군	진파리 1-15호무덤	15기	3기 (진파리1·4·10호) *동명왕릉=진파리10호
2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사신무덤과 주변고분군	사신무덤, 호남리 1-16호 무덤, 금실무덤, 토포리큰 무덤, 토포리 1-15호 무덤	34기	1기 (호남리 사신무덤)
3	평안 대동지구 덕화리고분군	덕화리 1·2·3호무덤	3기	2기 (덕화리 1, 2호)
4	평양 남포시 고분군	강서구역	강서세무덤, 덕흥리무덤, 약수리무덤, 수산리무덤	6기 (강서작은무덤 제외)
		용강구역	용강큰무덤, 쌍기둥무덤	2기
5	황해남도 안악지역	안악 1·2·3호무덤	3기	3기
총계			63기	(16기)

(총 5개 지역63기, 벽화고분16기 포함)



나. 중국측 등재목록 :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귀족무덤”(Capital Cities, Imperial Tombs and Nobles' Tombs of Koguryo)

A. 고구려의 수도와 광개토대왕비					
번호	이름	기간	위치	규모	유적
1	오녀산성 (홀본성)	첫수도 전37-후3년	요령성 환인현	남북 600m, 동서 200m	성터, 주거지, 병영, 초소터, 왕궁터, 우물
2	국내성	둘째 수도 3-427년	길림성 집안시	동벽 555m, 서벽 665m, 남벽 750m, 북벽 715m /총둘레 2,686m	
3	환도산성	한때 수도	길림성 집안시	둘레 6,951m	
4	광개토 대왕비	414년 건립	길림성 집안시	높이 6.39m	글자 1775자
*	평양 안학궁	427-586년	평양시	한변 622m, 넓이 38만㎡	427년 대성산성과 함께 건설
*	평양 장안성	586-668년	평양시	둘레 23km, 넓이 1186㎡	552년 시작해 586년(평원왕 28년) 완공

B. 고구려의 왕릉과 귀족무덤 : 왕릉 13기, 귀족무덤 26기(벽화무덤 17기 포함)					
번호	이름	정리 번호	규모	무덤형식	벽화 유무
왕릉 1	마선구 626호	MM 0626	40×40×7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2	천추무덤	MM 1000	60×60×9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3	서대묘	MM 0500	55×55×7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4	마선구 2100호	MM 2100	39×39×6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5	마선구 2378호	MM 2378	50×22×2.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6	칠성산 0211호	QM 0211	71×61×10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7	칠성산 0871호	QM 0871	35×35×5.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8	태왕릉	YM 0541	66×66×14.8m	특대형 계단적석 석실묘	
9	임강무덤	YM 0043	70×60×4.5m	특대형 계단적석 석실묘	
10	우산 2110호	YM 2110	66×38×7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11	우산 992호	YM 0992	38×38×6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12	장군총	YM 0001	31×30×12m	특대형 계단적석 석실묘	
13	장군총떨린무덤	YM 0002	10×10×3.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귀족 무덤 1	씨름무덤	YM 0457	15×13×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1
2	춤무덤	YM 0458	13×13×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2
3	말구유무덤	YM 1894	16×16×8m	대형 봉토유단 석실벽화묘	벽화 3
4	왕(王)자무덤	SM 0332	16×16×4.2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4
5	고리무늬무덤	XM 0033	16×16×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5
6	염모무덤	YM 0001	18×16×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6
7	산연화무덤	YM 0211	7×7×2m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7
8	장천2호무덤	JCM 002	둘레 143×6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8
9	장천4호무덤	JCM 004	둘레 60×3m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9
10	장천1호무덤	JCM 001	00×00×00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10
11	우산 3319호	YM 3319	20×20×1.5m	대형 계단적석 석실벽화묘	벽화11
12	다섯무덤 1호	YM 2101	25×25×8m	특대형 봉토 석실벽화묘	벽화12
13	다섯무덤 2호	YM 2102	55×55×20m	특대형 봉토석실묘	

14	다섯무덤 3호	YM 2103	35×35×15m	특대형 봉토석실묘	
15	다섯무덤 4호	YM 2104	30×30×10m	특대형 봉토 석실 벽화묘	벽화13
16	다섯무덤 5호	YM 2105	25×25×8m	특대형 봉토 석실 벽화묘	벽화14
17	사신무덤	YM 2113	25×25×8m	특대형 봉토 석실 벽화묘	벽화15
18	네무덤 1호	YM 2106	25×25×8m	특대형 봉토석실묘	
19	네무덤 2호	YM 2107	25×25×8m	특대형 봉토석실묘	
20	네무덤 3호	YM 2108	25×25×8m	특대형 봉토석실묘	
21	네무덤 4호	YM 2109	30×30×8m	특대형 봉토석실묘	
22	우산 2112호	YM 2112	15×15×1m	계단 적석 석광묘	
23	꺾인천장무덤	SM 1298	20×20×6.5m	대형 계단적석 실벽화묘	벽화16
24	형무덤	SM 0635	18×18×5.6m	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25	아우무덤	SM 0636	20×20×5.7m	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26	거북등꺾테기무덤	SM 1304	18×18×7m	대형 봉토 석실벽화묘	벽화17

(MM=만보정무덤떼, QM=칠성산무덤떼, YM=우산무덤떼, SM=산성하무덤떼, XM=하해방무덤떼, JCM=장천무덤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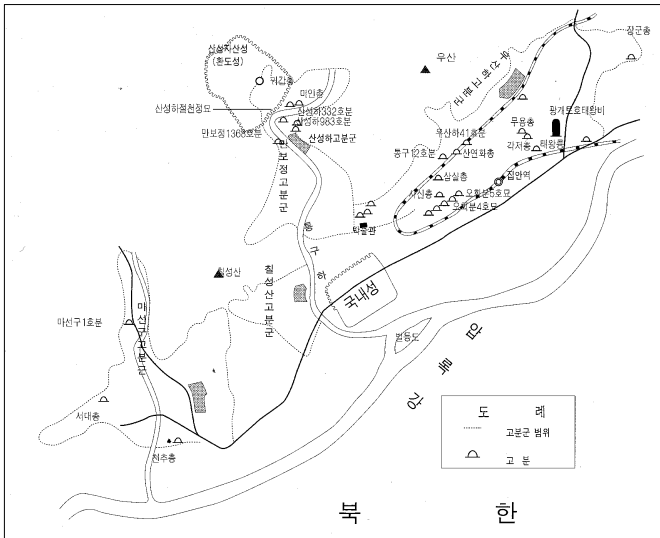
다.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도

1) 만주 집안 지역

A. 집안시 지역

- 하해방고분군(3) : 모두루총, 하해방31호분, 환문총
- 우산하고분군(9) : 우산하41호분, 각저총, 무용총, 통구12호분, 산연화총, 삼실총, 통구사신총, 오회분5호·오회분4호묘
- 산성하고분군(5) : 산성하332호분, 산성하983호분, 미인총, 산성자귀갑총, 산성하절천정묘

- 만보정고분군(1) : 만보정1368호분
 - 마선구고분군(1) : 마선구1호분
 - 장천고분군(3) : 장천1호분 · 2호분 · 4호분
- B. 환인 미창구고분군 : 미창구장군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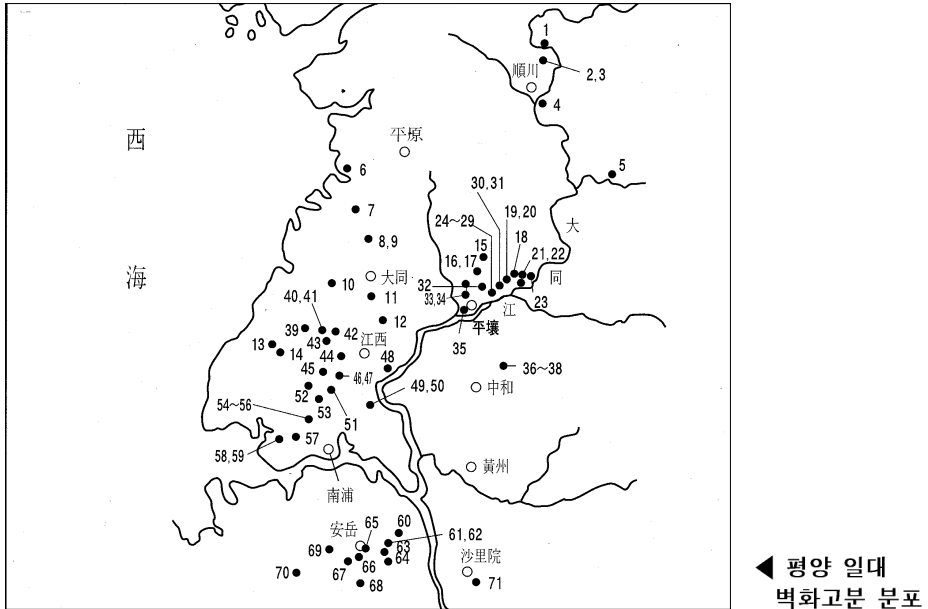
◀ 만주지역의 벽화고분 분포

2) 북한 지역

- A. 평안남도(14) : 1. 천왕지신총 2. 요동성총 3. 용봉리고분 4. 동암리고분 5. 경신리1호분 6. 운룡리고분 7. 정보리고분 8. 덕화리1호분 9. 덕화리2호분 10.가압리고분 11.팔청리고분 12.대보산리고분 13.마영리고분 14.계명동고분
- B. 평양시(24) : 15.화성동고분 16.청계동1호분 17.청계동2호분 18.내리1호분 19.노산동1호분 20.개마총 21.남경리1호분 22.남경리2호분 23.호남리사신총 24.고산동1호분 25.고산동7호분 26.고산동9호분 27.고산동10호분 28.고산동15호분 29.고산동20호분 30.안학동7호분 31.안학동9호분 32.미산동고분 33.장산동1호분 34.장산동2호분 35.평양역전이실분 36.전동명왕릉 37.진파리1호분 38.진파리2호분
- C. 남포직할시(21) : 39.수산리고분 40.강서대묘 41.강서중묘 42.덕흥리고분 43.간성리연화총 44.약수리1호분 45.보림리11호분 46.태성리1호분 47.태성리2호분 48.보산리1호분 49.대안리1호분 50.대안리2호분 51.쌍영총 52.용강대총 53.용흥리1호분 54.우산리1호분 55.우산리2호분 56.우산리3호분 57.매산리수렵총 58.성총 59.

감신총

- D. 황해남도(11) : 60.복사리고분 61.봉성리1호분 62.봉성리2호분 63.안악1호분 64.안악2호분 65.안악읍고분 66.평정리고분 67.로암리고분 68.안악3호분 69.한월리고분 70.월정리고분
- E. 황해북도(1) : 71.어수리고분



II. 고구려인들의 삶과 생활문화

1. 고구려의 신년축제문화, 동맹제천 국중대회

가. 동맹제천의 천신과 국동대혈의 수신

나. 10월 국중대회의 신년 기원(紀元)의례 성격 : 첫째,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기의례이면서, 왕의 친제(親祭)로 거행되는 제천의례, 둘째, 동맹의 경우

왕을 비롯하여 大加 主簿 등 百官 이하가 모두 참여하는 연중의 가장 큰 국가공식의 국중대회, 셋째, 비단옷 등 공복을 입는 것이나 여러날 음주가무하면서 어울려 노는 모습 등 → 세계의 보편적인 신년 축제의 양상과 유사

- 관련사료 :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穴(范書, 隧, 作隧),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三國志·魏書東夷傳』 高句麗);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國城東有大穴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舊唐書·東夷列傳』 高麗)

다. 부여의 은정월 영고(迎鼓) 제천 : “以殷正月祭天,(范書, 作臘月, 何焯曰, 用殷正月, 衣尚白, 猶箕子遺教也.)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沈欽韓曰, 天中記, 謝承書云, 東夷三韓俗, 以臘日家家祭祀, 俗云臘鼓, 鳴春草生也. 荆楚歲時記, 十二月八日, 爲臘日.)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在國衣尚白, 白衣大袂, 袍·袴, 履革鞜.” (『三國志·魏書東夷傳』 夫餘)

라. 동예의 10월 무천(舞天) :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三國志·魏書東夷傳』 濊條)

2. 고구려인들의 놀이문화

- 씨름, 겨루기
- 말타고 활쏘는 경기
- 대동강의 뱃놀이
- 수산리벽화, 팔청리벽화의 교예도

3. 수레의 나라, 고구려

- 벽화의 수많은 수레 그림
- 안악3호분의 수레문화

4. 여성의 나라, 고구려

- 벽화 속 여성들
- 덕흥리벽화 소수레와 여인들
- 수산리벽화의 부부행렬도
- 장천1호분의 부부연화화생도
- 고구려인들의 혼인풍속 : 서옥제(婿屋制),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

5. 고구려인의 의식주 생활문화

- 안악3호분의 부엌살림, 고깃간, 차고, 외양간·마굿간
- 맥적(貂炙)과 맥반(貂盤)
- 춤무덤의 다과상
- 조우삼관
- 쪽구들

Ⅲ. 고구려인들의 상상력과 신화·천문·종교의 세계

1.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천손사상

- 『광개토태왕비』(414)의 천제지자, 황천지자, 하백녀랑의 출자신화 : “天帝의 아들이자 皇天의 아들이며 河伯의 외손인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왕위를 즐기워하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黃龍을 내려보내 昇天케 하였다.”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置, 履龍眞昇天…」

- 『모두루묘지명』(5세기초)의 일월지자(日月之子)와 하백지손(河泊之孫) 신화 : “하백의 외손이며 일월의 아들인 추모성왕(鄒牟聖王)께서는 원래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천하 사방은 이 나라와 고을이 가장 성스러운 곳임을 알지나라.”
「河泊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天下四方 知此國郡最聖 … 知河泊之孫 日月之子 所生之地來 … 河泊日月之□ … 國置上大開土地好太聖王緣祖父 … 河泊之孫 日月之子 聖王 … 昊天不弔奄便 … 奴客在遠哀切 如若日不□□月不□明 …」(牟頭婁墓誌銘)

2. 천제의 하강과 홀본성(오녀산성)

- 북부여의 왕 해모수와 오룡거(五龍車) 신화 : 임술년(전한선제 신작 3년, B.C. 59) 4월 8일에 하늘의 임금(天帝)께서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홀승골성에 강림하여, 도읍을 정하고 왕이라 칭하고는 국호를 북부여라 하였다.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解慕漱)라 자칭하였다. 아들을 낳아 부루라 이름하면서 해(解)를 성씨로 삼았다. 해모수왕은 뒤에 상제의 명으로 동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동명제(東明帝)가 북부여를 이어 흥하였다. 도읍을 졸본주에 세웠고 졸본부여라 하였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삼국유사』 「북부여편」)
- 고구려의 첫 도읍지 비류수(혼강) 강가 홀본성(오녀산성)

3. 고구려의 신화와 종교

- 고구려의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의 국가제사 : 고구려의 영성제사에 관한 기록이 처음 기재된 『삼국지·위서동이전』(西晉 陳壽)에 따르면, 주거지의 좌우에 큰 집을 짓고 鬼神을 제사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또한 靈星과 社稷에 제사하였음을 묘사하였다. 뒤이은 古鄒加의 설명에서도 그 靈星 제사가 宗廟·社稷에 나

란히 병칭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국가제사로 거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사직보다 앞서 있다.

「於所居之左右 立大屋，祭鬼神。又祀靈星·社稷。… 以十月祭天，國中大會，名曰東盟。… 王之宗族，其大加皆稱古鄒加。涓奴部本國主，今雖不爲王，適統代人，得稱古鄒加，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 其國東有大穴，名隧穴。十月 國中大會，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置木隧于神座。」(『三國志·魏書東夷傳』高句麗)

- 고구려벽화의 비선(飛仙)과 비천(飛天) 문화
 - 덕흥리벽화(408년)의 옥녀(玉女)와 선인(仙人) 그림
 - 강서대묘의 삼신산과 신선도상
 - 고구려 벽화의 압도적인 승선(昇仙) 도교 분위기 : 신선도교, 신화도교
 - 벽화주제 추이 : 승선 벽화 → 선불(仙佛) 혼합 벽화 → 승선 벽화
- 고구려의 전통신앙 : 요동성에 고등신(高登神)과 부여신(夫餘神)의 사당
- 고구려의 도교와 불교와 유교
 - 4세기 벽화의 신화 도교 도상들 : 안악3호분(357년), 덕흥리벽화(408년)
 - 4세기 후반 소수림왕의 불교 도입 : 372년(동 2년) 전진(前秦)에서 외교사절과 함께 온 승려 순도(順道)와 374년 들어온 아도(阿道)를 위해, 375년에는 초문사(肖門寺 : 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창건 주석케 하여 불교의 수용과 보급에 노력
 - 372년 유교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유교이념의 확대 도모
 - 373년 국가통치의 기본법인 율령(律令) 반포
 - 7세기 연개소문의 도교 도입 : 정족의 형세 도모
 - 고구려벽화의 도교와 불교의 독법 문제

4. 천문의 나라, 별자리의 왕국 고구려

- 고구려의 별자리 관측과 24기의 천문벽화
- 고구려벽화의 사신도(四神圖)와 사숙도(四宿圖) 별자리 : 청룡·심방육성(전갈)

자리) - 백호·삼별육성(오리온자리) - 주작·남두육성(궁수자리) - 현무·북두
칠성(큰곰자리) - 황룡·북극삼성(중앙)

- 씨름무덤의 별자리와 진과리4호분의 금박천문도 : 벽화유물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북극성 별자리그림

5. 고구려의 천하와 황룡 우주론

- 모두루묘지명의 천하사방과 추모성왕
- 사신도벽화와 오신도벽화 : 2신도 → 4신도 → 5신도
- 집안오회분 4호묘 천정석의 북극3성 별자리와 황룡도
- 평원왕 강서대묘의 천정황룡벽화